



돌아온 공룡 세상 '쥬라기월드2'

할리우드 흥행보증수표... 세계 최초 한국 개봉

할리우드가 또 한 장의 흥행보증수표를 꺼내 들었다. 유전자 기술로 되살아난 공룡의 세상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하 쥬라기월드2)이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관객을 찾아왔다. 6일 개봉한 '쥬라기 월드2'는 북미보다 2주 빨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일을 벗었다. 이는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을 블랙버스터 영화의 '테스트 베드'로 여기

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쥬라기 월드2'는 2015년 개봉해 554만6,792명을 불러들인 '쥬라기 월드'의 속편으로 전편의 주인공 '오웬'(크리스 프랫 분)과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분)가 그대로 출연한다. 원조 시리즈인 '쥬라기 공원' 1·2편에 출연한 이안 말콤(제프 골드블럼) 박사도 21년 만에 복귀했다. 다만, 이번 작

에서는 몸으로 구르는 역이 아니라 의회에 출석해 생명 윤리를 강조하고 유전공학의 위험성을 역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반가운 얼굴은 사람만이 아니다. 전편에서 유전 조작으로 만든 최강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를 몰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벨로시랩터 '블루'는 이번 편에서도 '정의의 공룡' 역할을 맡았

다. 시리즈 첫 작품인 '쥬라기 공원'에서 강렬한 엔딩 신으로 수많은 팬을 양산한 백전노장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전편에 이어 위용을 뽐냈다. 다만, 이번 작에서는 '블루'의 활약에 다소 존재감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쥬라기'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이 '렉스'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 대목이다. '쥬라기 월드2'는 인도미누스 렉스의 탈출로 공룡 테마파크 '쥬라기 월드'가 파괴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한다. '쥬라기 월드' 개봉 후 3년 만에 속편이 개봉했으니 현실에서의 시간과 영화 속 시간이 거의 같이 흐른 셈이다. 쥬라기 월드의 폐쇄 이후 코스타리카 인근 섬 이슬라 누블라에 진정한 공룡의 세상이 된다. 그러나 화산섬이던 이슬라 누블라에서 화산활동이 감지되고 공룡들은 다시 한 번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공적으로 재창조된 공룡에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결국 인간은 공룡의 멸망을 지켜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과거 존 헤먼드와 함께 쥬라기 공원을 창조한 벤자민 록우드는 공룡보호 활동가가 된 클레어에게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한다. 문제는 다른 공룡은 포획이 어렵지 않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벨로시랩터 '블루'만은 워낙 영리해 포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클레어는 블루를 키우고 훈련한 오웬을 떠올리고 그에게 동행을 제안한다. 오웬과 클레어는 중무장한 탐사대와 함께 이슬라 누블라에 도착하지만 섬은 이미 대폭발 직전의 상황. 오웬은 블루를 찾아 정글로 들어가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는 수중 탐사대가 전편에서 모사 사우루스가 집어삼킨 인도미누스 렉스

의 뼈를 절단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무언가 공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공룡섬 이슬라 누블라에서의 이야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탈출 장면에서 화산재에 휩싸이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실루엣은 애잔한 감정을 자아낸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록우드 저택에서 진행된다. 드넓은 대자연이 아닌 인간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룡 이야기는 생각보다 음산하고 꽤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공룡'은 흥행을 보증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남자아이라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 한 번은 공룡에 빠지는 시기가 온다. 오죽하면 '타닝 메카드'조차 '공룡 메카드'를 내놨겠는가. 이를 방증하듯 '쥬라기 월드2'는 개봉 전날인 5일 오후 9시 기준 예매율 79.2%, 사전 예매관객 51만4,000여 명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전자 기술이 아닌 CG 기술로 되살아난 공룡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복제된 생명체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가'라는 제법 묵직한 질문도 던지는 작품이다. 이번 작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쿠기영상(엔딩 크레딧에 포함된 짧은 영상)이 포함됐다.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 때까지 기다리면 볼 수 있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연합뉴스

특별한 곳 찾아 떠나는 예능

쏟아지는 여행 프로그램 속 화성·사막 등 특수공간 눈길

남극도 모자라 이젠 우주로, 사막으로 떠난다. '탐험 예능'의 대표격인 SBS TV '정글의 법칙'이 국내 예능 최초로 남극 땅을 밟아 화제가 되면서 더욱 특별한 곳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 예능도 쏟아지고 있다.

오는 7월 방송 예정인 tvN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는 '화성'을 주제로 한 신개념 SF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영준 PD는 SBS 재직 시절 '정글의 법칙'에서 호흡을 맞춘 개그맨 김병만을 필두로 배우 하지원, 구구단 세정, 2PM 닉쿤과 함께 지난 3일 미국 유타에 있는 화성 탐사 연구기지 MDRS(Mars Desert Research Station)로 떠났다.

그동안 예능에서는 우주를 소재로 다루던 무중력 체험 등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게 tvN 설명이다. 특히 MDRS는 그동안 과학자들에게만 열린 곳이었는데, 연예인에게 문을 열기는 이번이 최초라고 방송은 전했다.

MDRS는 화성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만들어놓은 기지로, 출연진은 그 안에서 헬멧과 우주복 등을 착용하고 체험하게 된다. 영화 '마션'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우주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활동도 할 예정이다.

tvN 측은 "더 의미가 있는 건 출연진



들이 체험한 기록들이 자료화해 기지의 연구 데이터로 쓰일 예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물론 모금 찾기 어려운 사막으로 떠난 예능인들도 있다. KBS에서 몬스터유니온으로 이적한 유호진 PD 시작으로 기대를 모은 KBS 2TV '거기가 어딘데??'는 배우 지진희와 차태현, 배정남, 개그맨 조세호가 오만으로 떠나 아라비아 사막 42km 구간을 3박 4일 내 횡단하는 미션에 도전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아라비아 해가 최종 목적지로 제시됐지만, 그곳에 닿기까지는 온통 척박한 땅만 있어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드넓은 사막 안에서 찾아올 폐소 공포증에 출발하기도 전부터 공포를 느끼는 출연진 모습이 시청자들도 함께 긴

장하게 했다. '갈릴레오'와 '거기가 어딘데??' 외에도 '정글의 법칙'은 꾸준히 오지 탐험을 이어가고, MBC TV '두니아'는 가상이지만 공룡 등이 출몰하는 원시 자연으로 시청자를 초대하는 등 특수한 공간을 찾아 떠나는 예능은 점점 늘고 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여행 예능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명소로, 해외로 나가 힐링하는 것은 새롭지 않게 느껴진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힘든 곳보다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갈릴레오'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 영화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은 작품이 관심을 끈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 화성 등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돼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경호, 타임슬립 형사 변신

30년 시간 여행 '라이프 온 마스'

80년대 재연아닌 수사복고에 중점

"기존과 차별화...한태주 성장드라마"

배우 정경호(35)가 30년 전으로 시간 이동(타임슬립)한 형사로 변신한다. 그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OCN 주말극 '라이프 온 마스' 제작발표회에서 "원작과 다른 타임슬립 작품을 모두 찾아봤다"고 말했다. '라이프 온 마스'는 2018년의 연쇄살인범을 쫓던 원작주의 두뇌파 형사 한태주(정경호 분)가 1988년의 육감과 형사 강동철(박성웅 분)과 만나 벌이는 복고 수사극이다. 2006년 영국 BBC에서 방영한 원작을 리메이크했다. 정경호는 "찾아본 타임슬립극과는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 이 드라마는 한태주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극 중 한태주는 1988년에 눈을 떠 꿈

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그 시대 형사들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자신이 쫓던 범인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수사를 중시하는 한태주와 거칠고 육감에 의존해 수사하는 강동철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브로맨스 조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경호는 상대역을 맡은 박성웅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라며 "함께 드라마 할 수 있고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으로 박성웅 씨에게 맞는다. 처음엔 '맛아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프다"며 "정말 잘 때린다. 아프니까 도망가게 된다"고 웃었다. '라이프 온 마스' 연출은 이정호 PD가 맡았다. 정경호와는 2013년 드라마

'무정도시' 이후 다시 만났다. 정경호는 "감독님만 믿고 대부분 안 보고 출연을 결정했는데 '대분을 보고 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매 신에 출연해 힘들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그는 "시청률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출연자들끼리 내기를 했다. 전 3.1%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정호 PD는 "타임슬립 드라마가 많지만 '라이프 온 마스'는 다른 점이 있다. 그 시대 생활을 재연하는 것보다도 수사로 복고를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1988년으로 온 한태주가 이 모든 게 꿈일까 현실일까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오는 9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

빌보드 '핫100'

2주 연속 진입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 51위 기록



그들 방탄소년단의 신곡 '페이크 러브'(FAKE LOV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51위를 기록했다. 5일 빌보드 최신차트에 따르면 지난주 '핫 100' 10위를 기록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이번 주 51위를 차지했다.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방탄소년단은 또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6위를 기록해 2주 연속 메인차트에 모두 진입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로 '빌보드 200'과 '핫 100'에 한국 가수 최초로 동시 진입한 데 이어 지난 주 정규 3집으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10위를 기록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정우성 특별전

전도연에 이어 두 번째... 12편 대표작 상영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는 배우 정우성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BIFAN에서는 지난해 전도연 배우의 특별전에 이어, 한국영화와 함께 성장해 왔고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시대 영화인들을 만나는 두 번째 시리즈로 정우성의 영화 세계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1994년 데뷔해 현재까지 30편에 이르는 독립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배우로, 제작자로 그리고 감독으로 중형 무진 활동하며 한국영화의 불멸 아이콘으로 성장해 왔다.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비트'와 '태

양은 없다', '아수라'와 '강철비'까지 12편의 대표작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통해 언제나 새롭고자 했던 그의 수많은 변화의 순간들과 그를 통해 빛어낸 한국영화의 빛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BIFAN은 밝혔다. 영화 상영과 함께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물론 국내 최고의 평론가들이 참여한 기념 책자와 기자회견, 정우성 출연작의 주제곡이 포함된 OST 콘서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정우성 특별전은 오는 7월 12~22일 개최되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올해의 프로그램과 주요 상영작은 7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개된다.

